



김명근 기자의 IT월드

불붙은 스마트홈 전쟁

비즈 갤러리

AI·IoT 결합한 똑똑한 집... “스마트홈을 잡아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성·LG전자 IFA서 스마트가전 공개
이통사, 건설사 제휴 스마트 아파트 구축
카카오도 포스코·GS건설 손잡으며 가세



LG전자 TV와 아마존 AI 스피커 ‘아마존 에코’ 연동 시연 모습(왼쪽)과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가 적용된 실 입주 아파트 모습. 정보기술 기업들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집이 더욱 똑똑해진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제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국내 대표 가전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IFA’에서 관련 기술과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AI와 IoT 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전제품과 모바일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구현했다. AI플랫폼 ‘빅스비’와 대표 스마트가전인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통해 간단한 음성명령만으로 상황에 따라 집안의 여러 기기를 제어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저녁에 친구를 불러 홈파티를 할때 아침에 음성명령으로 친구들에게 초청 메시지를 보내고, 오후엔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식재료를 찾아 삼성패이로 주문하는 식이다. 퇴근할 때는 “하이 빅스비, 커피 홈 모드”라는 명령으로 에어컨, 로봇청소기, 실내조명, TV 등을 원하는 상태로 작동시킬 수 있다. ‘영화 감상 모드’에서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피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LG전자도 AI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생태계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AI플랫폼인 아마존의 ‘알렉사’와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를 연동한 스마트가전을 선보였다. 각

사의 AI플랫폼이 적용된 아마존의 ‘에코’와 구글의 ‘구글 홈’은 물론 자체 개발한 AI스피커 ‘스마트싱큐 허브’를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주요 생활가전과 연동해 동작을 제어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독자 개발한 딥러닝 기술 ‘딥싱큐’를 탑재해 제품 스스로 사용 패턴 및 주변 환경을 학습해 최적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가전을 전시했다. 일반 가전에 부착하면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싱큐 센서’ 등 홈 IoT 기기들도 선보였다.

●**똑똑한 집 ‘스마트 주택’ 경쟁에 통신·인터넷 강자 가세**
가전제조사들이 스마트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스마트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면, 통신

기업들은 건설사와 제휴해 스마트 주택 만들기 에 힘을 쏟고 있다.
SK텔레콤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25곳과 제휴를 맺고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기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가 적용된 실 입주 아파트는 지난 달 1만 세대를 돌파했다. 연말까지는 전국 15개 단지 1만5000여 세대로 확대될 것이란 게 SK텔레콤 측의 전망이다.
KT도 3월부터 대림건설과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의 제휴를 통해 AI 아파트 구축에 힘쓰고 있다. 6월에 대원플러스알앤디와 계약을 체결하며 오피스텔형 레지던스에도 ‘기가 IOT 홈’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0여 개 이상의 건설사와 사업협약을 맺고 주택건설시장에 빠른 속도로

홈IoT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엔 대우건설, LH공사 등 전국단위 대형 건설사들 뿐 아니라 협성건설, 제일건설, 모아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향토 건설사들까지 제휴영역을 확장해 지역 대표 아파트 브랜드에도 홈IoT 플랫폼을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뜨거운 경쟁에 앞으로 더욱 강력한 새 도전자로 등장했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다. 카카오는 포스코건설·포스코ICT, GS건설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의 AI 플랫폼 카카오톡(아이)을 활용한 스마트홈 구축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GS건설은 AI 스마트홈 시스템을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반포 1·2·4 주구 사업을 수주해 첫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대형형 스마트 타샵’을 2018년 분양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인공지능 경쟁도 ‘점입가경’

구글·아마존 가전기업과 플랫폼 확장
네이버 카카오 가세 AI스피커 각축전

스마트홈 서비스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은 스피커 등 자체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다른 회사의 외부 기기기로 플랫폼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AI플랫폼인 아마존의 ‘알렉사’와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다. 양사는 각각 ‘에코’와 ‘구글 홈’이라는 스피커형 기기를 내놓는 것과 동시에,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도 그 중 하나다. LG전자는 이번 IFA에서 에코를 통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시연을 했다. “알렉사, 채널 2번 틀어줘”라는 명령으로 TV리모컨 없이 음성으로 TV를 제어하고 “알렉사, 로봇청소기 켜줘”라고 말하면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하는 식이다. LG전자는 올해 중 미국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오븐 등 7개 생활가전에 알렉사 연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출시할 ‘웹OS 스마트 TV’에 해당 서비스 연동도 검토 중이다.
LG전자는 스마트폰 ‘V30’이나 구글 홈 등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기기와 주요 생활가



고객이 스타필드 고양 내 KT 기가지니 체험관에서 AI 셋톱박스 ‘기가지니’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KT

전을 연동시키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국에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오븐 등 생활가전 7종에 이미 구글 어시스턴트 연동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삼성

전자가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등과 연동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업이 늘고 있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은 이번 IFA에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내장된 스피커를 전시했다. 밀레도 알렉사를 통해 자사의 생활가전을 움직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AI플랫폼 경쟁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지난해 ‘누구’라는 AI 스피커를 선보인 SK텔레콤은 유통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최근 휴대용 ‘누구미니’를 내놓으며 사용성을 넓혔다. KT도 ‘기가지니’라는 AI 셋톱박스를 내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국내에서 시범 출시한 네이버의 ‘웨이브’가 있고, 카카오 또한 ‘카카오톡’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AI 플랫폼 빅스비를 적용한 스마트 스피커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김명근 기자

신한카드, 블라인드 방식 ‘디지털 패스’ 채용
신한카드가 블라인드 방식의 ‘디지털 패스’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 ‘디지털+카드’를 주제로 자신만의 생각과 역량,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오직 디지털에 대한 역량과 아이디어로만 평가한다. 11일까지 신한카드 채용 홈페이지에서 성명, 연락처 및 ‘디지털+카드’에 대한 자유 발표 주제만을 작성해 지원하면 발표 주제만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일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되며 우수자는 9월말 예정인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하이트진로, 크래프트 맥주 2종 출시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일본 기린사(社)의 프리미엄 크래프트 맥주 ‘그랜드 기린 IPA(인디언 페일 에일·사진)’ ‘그랜드 기린 JPL(재팬 페일 라거)’ 2종을 내놓았다. ‘그랜드 기린’은 2012년 일본에서 한정판으로 출시한 이후 매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다. 3월 ‘그랜드 기린 IPA’와 ‘그랜드 기린 JPL’로 리뉴얼했으며, 한국과 대만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중국, 호주 등에도 판매될 예정이다. 수도권 고급 이자카야 등 프리미엄 유흥 업소를 중심으로 8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내외국인 대상 한옥체험관광상품 운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품 고택에서 머물며 전통 주거문화와 양반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체험관광상품이 나온다. 5월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품고택 및 한옥스테이’의 체험관광상품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70년 이상 된 전통가옥을 대상으로 평가해 선정한 84개의 ‘명품고택’과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평창 정강원 등 373개의 ‘한옥스테이’중에 지역관광상품과 연계가 가능한 한옥으로 선정했다.

인터파크 27인치 QHD 모니터 출시



인터파크가 27인치 QHD 모니터 ‘인터파크 i-Monitor MOON 2K’ (사진)를 출시했다. 27인치 16대9 와이드 화면에 전문가

급 QHD 해상도를 제공하며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해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해도 있는 그대로의 색상과 명암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도 저렴한 기업체, 관공서, 도서관은 물론 PC방과 같은 상업 시설에 최적화됐다.

편집 | 신하늬 기자

www.gisasikdang.co.kr

NAVER 검색창에 **깍둑고기 기사식당**을 쳐보세요

깍둑고기 기사식당! 성공창업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동행하실 가족을 모십니다
전국 각 지역 1호점 특별한 혜택 (본사문의)

9월 특별한 창업혜택!!

- 1.가맹비**면제**
- 2.보증금**면제**
- 3.무이자**대출**
- 4.로열티**면제**
- ..등등

업종변경 맞춤형 창업으로! 고~고~

기존 고가집에서 업종변경

기존 고가집에서 업종변경

월매출 3,000만원

월매출 1,820만원

강서구청점 월매출 1억원 달성!!

연신내점 월매출 7,000만원 달성!!

깍둑고기 두루치기 그리고 칼집 통삼겹 믿고먹는 3,900원의 감동

기사식당 최강 점심메뉴

언제든지 싸고 맛있는 고기메뉴

김치 두루치기 3,900원	매콤 두루치기 3,900원	수제미갈비 정식 4,900원	육회 비빔밥 4,900원	족발기 스톱고기 4,900원
칼집 통삼겹 3,900원	칼집 통족살 3,900원	특제양념갈비구이 4,900원	우삼겹 5,900원	소갈비살 8,900원
				육회 8,900원

본사 : 인천시 서구 가정동 504-2 육가공 센터 : 경기도 하남시 김단신로 42-1 물류 센터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95

동행문의: 032.576.4242